

방재시험연구소, 선박 화재안전세미나 개최

— 본문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창규 이사장 식사를 발췌 게재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李昌圭)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3월 19일 연구소 강당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의 화재안전에 관한 방재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대형 해난사고의 빈발과 안전문화 정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박의 화재안전 설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조선기자재 업체, 조선공업회사, 선주협회, 국내·외 선급의 임원 및 관계자, 선박안전관련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최신 선박 방재기술에 대한 방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으로는

첫째, SOLAS와 선박의 화재안전을 주제로 김태우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의 발표가 있었고

둘째, 선박의 방화설계를 주제로 김명배 한국기계연구원이며 공학박사의 발표가 있었고

셋째, 선박구조 및 재료에 대한 화재안전관련시협개요로 이덕준 방재시험연구소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날 세미나에서 李昌圭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방재시험연구소의 방재기술세미나를 위하여 조선, 해운 그리고 보험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주옥과 같은 주제를 발표하여 주실

한국선급의 김태우 선생과 한국기계연구원의 김명배 박사,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이덕준 책임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하여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안태환 심의관과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운용 회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화재예방 전문기관입니다.

협회는 방재와 위 담보를 위한 위험진단 및 평가, 조사연구,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의 제시, 방화제품에 대한 안전시험 및 인증업무, 화재예방을 위한 계몽 및 방재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직원은 20여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지닌 우수한 방재전문가들이 대부분으로서 국내 유일의 법정 방재기관입니다.

방재시험연구소는 협회가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연구를 위해 독립된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오는 4월이 되면 만 11년을 맞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막을 연 1차 산업혁명은 Hardware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석탄과 철광석을 이용하여 육상에서는 철마를 달리게 하고 해상에서는 증기선을 띄우게 함으로써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채발행 등 금융수단의 강구 못지 않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Software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와 같이 현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화재 등 방재관련 부문의 연구 및 시험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던 시대에 저희들이 뛰어들어 노력한 결과 오늘에 와서는 선진외국의 유사기관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방재기술의 습득과 보급으로 국산 방재산업의 제품 및 시설구조물의 품질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해양수산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방화성능시험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해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검사관으로도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연구소는 과학기술처로부터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천 국제공항 방재시스템 분석연구,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 기술개발, 스틸모델하우스의 내외벽 내화성능시험연구와 컴퓨터 화재모형 프로그램 응용 및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육상건물 등의 화재안전관련 업무만을 해 오다가 88년 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방화용품 25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선박화재안전분야도 저희들의 주요한 관심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외국시험기관에 의존해 왔던 국내 조선 기자재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우리 연구소에서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화절감은 물론 시간 및 경비절약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의 우리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범세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세계일류의 화재시험연구기관인 미국의 UL, FMRC, 영국의 FRS, LPC, 독일의 Vds 및 일본의 건축연구소, 소방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미국의 FMRC와 일본의 건재시험센터와의 상호기술협정을 맺어 국제교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단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무슨일이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일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함으로써 각 분야의 기술지식이 집대성되는 것이 곧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의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방재기술세미나」가 지니는 깊은 뜻을 헤량하셔서 끝까지 동참하여 주시고 이왕 여기까지 오신김에 오후 순서에 따라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소의 시험현장도 둘러 보시고 돌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규모는 작지만 알찬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정성을 다한 방재시험연구소의 조규만 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거듭 바라건대, 오늘 이곳 여주 산기슭에 비록 조촐하게 마련된 「세미나」이지만 여기 담긴 뜻과 열기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젊어지고 나갈 전문화 시대에 요청되는 Professionalism의 서막을 열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식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3. 19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창규